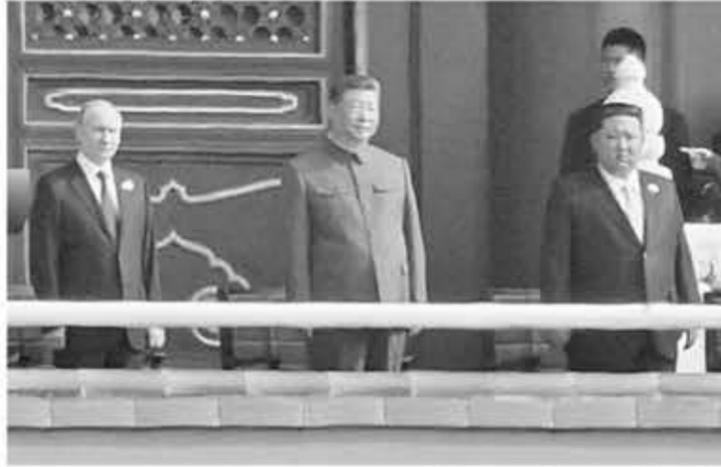


중국 대규모 열병식 '반서방의 축' 과시

시진핑·푸틴·김정은 첫 공개 공동행보, 군사외교력 과시

중국이 2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참석해 이른바 '격변의 축(Axis of Up-heaval)'이라 불리는 반서방 연대가 가시화됐다. 세 정상은 퍼레이드 관람석에 나란히 올라 첫 공개 공동행보를 과시했다. 퍼레이드 행사는 중국이 군사·외교적 위상을 과시하는 동시에, 러시아·북한·이란과의 연대를 통해 서방과의 대립 구도를 선명히 드러낸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퍼레이드는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항일전쟁 승리'를 강조하는 동시에 공산당의 역사적 정당성을 재확인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화해보다는 반일 정서 조장을 통해 국내 정치적 명분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이 행사를 통해 공산당의 역할을 확대하고 '수정주의적 역사'를 강화함으로써 정권을 공고히 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주요 서방국가는 푸틴의 참석을 이유로 행사

에 불참했다.

퍼레이드는 대만을 비롯한 주변국과도 긴장을 야기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며, 시 주석은 군대의 임무가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언급해 대만에 대한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대만은 중국의 전승 기념 방식에 선을 그으며, 라이칭

더 총통이 타이베이 총열사에서 "대만은 총 대신 평화로 기념한다"고 발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별도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북한 병사들을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싸웠다"고 치하했으며, 김 위원장은 "모스크바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망한 북한군은 약 2천 명으로 추산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딸 김주애와 동행한 첫 다자 외교 무대 참석으로,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발판으로 중국과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새로운 냉전'을 주장하며 대미 공조를 강화하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퍼레이드 참석은 김정은에게 외교적 승리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미국과의 비핵화 회담 재개 시도를 거부하며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시진핑 및 푸틴과의 상징적인 사진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냉전'과 '미국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서사를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최신 미사일, 드론, 정찰 로봇 등 대거 공개

중국, 열병식서 비약적인 무기체계 발전 부각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들을 대거 공개하며 세계를 향해 뚜렷한 메시지를 보냈다. 단순한 과시를 넘어 전략적 방향성과 외교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주목 받은 것은 무기 생산 능력의 비약적 발전이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서구 장비의 단순 모방 수준에 머물렀던 중국은 이제 독자적이고 다양한 무기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드론과 미사일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졌으며, 중앙집권적 체제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단기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했다.

미사일 중심 전략도 눈에 띄었다. 다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DF-61,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DF-5C, 괌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괌 킬러'라 불리는 DF-26D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초고속 대함 미사일 YJ-17, YJ-19, 레이저 무기 LY-1, 스텔스 전

투기 J-20과 J-35도 선보이며 대미 억제력을 부각했다. AI와 드론도 열병식 전면에 부각됐다. 초대형 무인 잠수정 AJX-002,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며 공격을 지원하는 스텔스 드론 GJ-11, 지상 정찰·수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 늑대' 등 다양한 무인 체계를 공개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위력을 목격한 뒤 중국이 전투 체계 전반에 AI를 적극 통합하려는 전략을 보여준다.

이번 퍼레이드는 무기 과시와 함께 미국에 대해 한반도, 대만 해협, 우크라이나 등 다중 전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압박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양적 생산력과 기술력에서 빠르게 추격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강점인 실전 경험과 기동성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다. 미군이 현장 단위의 자율적 결정을 바탕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반면, 중국군은 상

부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툼다운' 구조라는 한계가 지적된다.

1593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3에 있습니다)

1			9	4	2	
	2	7				4
8				3	5	
		5		7		3
		6		2	7	
3				9	4	
	9		3		6	
		1		5		9
	3		8	7		

Sandy Kim 라인댄스 초급반 오픈

NOW OPEN

제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샌디 김의 라인댄스 초급반이
드디어 오픈합니다

<초급반>
월·목요일: 오전 9시~10시 15분
<중·고급반>
월·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등록비>
일주일에 두 번 참여시 월 \$80
한 번 참여시 월 \$45
* 한국어로 수업 진행 *

-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춤!
- 스트레칭 해소
 - 정신 건강 증진
 - 만성질환 예방
 - 치매 예방 효과

T.562.279.4200

305 E.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